

자돈사 사양관리 포인트 실천으로 폐사율 낮추기



신 현 덕 원장
신베트동물병원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의 중요성을 비유할 때, 곧 잘 냄비에 물을 붓고 개구리를 넣고 냄비를 가열하면서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그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몸이 삶아진 채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냥 그 개구리가 미련해서 물이 뜨거워지기 전에 기어 나오지 못했다고 개구리를 탓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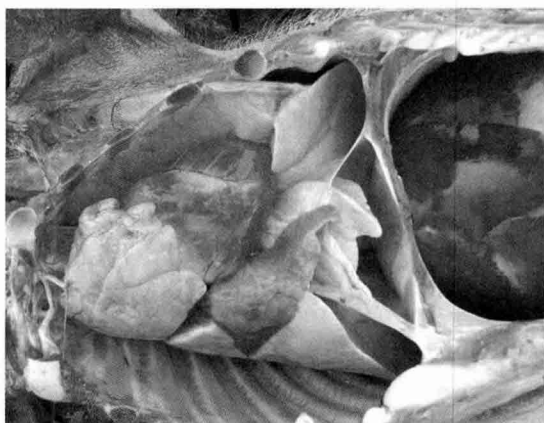
농장에서도 많은 돼지가 죽어나간다. 어떤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돼지가 죽어나가는지를 농장주와 관리자는 이해를 해야 하고, 그 변화요인을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지난 여름에는 폐사율도 낮았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환돈이 늘어나고 폐사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마다 실험실의 개구리가 생각난다.

따뜻함이 느껴오는 물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다 제대로 발버둥 쳐보지도 못하고 죽은 개구리를 농장 안의 자돈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 자돈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에 관한 사양 포인트가 보일 것이다. 자돈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서 죽어 나간단 말인가?

우선 환경온도, 상대습도, 온도일교차, 체감온도, 일조시간, 풍속, 돈사내 먼지량 같은 환경요소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돈방당 사육두수, 돈군흐름도에 변화는 없는지, 빈돈사/돈방의 수세 → 소독 → 건조 → 비우기 기간의 단축은 없었는지도 봐야한다. 사료 원료나 제품과 급이 프로그램, 음수 청정도와 니플수입에는 변화가 없는지도 체크해 봐야 한다. PRRS 같은 중요한 전염병에 대한 번식돈의 안정화 수준과 자돈~비육돈 구간에서의 바이러스 순환에 변화는 없는지도 검사해보면 변화를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관리자의 돼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변화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농장주 업무 중 하나가 된다.



<사진 1> 바이러스성 질병이 있는 농장에서는 1두 1침, 주사 위생이 중요 포인트



<사진 2> 자돈기 셋바람과 온도일교차는 파스튜렐라 감염증 촉발(다발농장은 Pm3A 항원 함유백신 필요)

관리자가 돼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돼지가 어떤 먹거리, 마실거리를 좋아하는지, 잠자리는 등 따스한지, 좋은 공기 마시고 숨쉬기는 편한지, 열나고 콧물이 나지는 않는지, 소화 잘되어 예쁜 똥을 싸는지 아닌지를 관심 갖고 돌봐주는 것이다.

사람도 사람을 사랑하다 배신 때리는데, 사람이 돼지한테 등 돌리는 일은 쉽고도 반복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돼지에 대한 애정품질을 관리하는 것 만큼 양돈에서 중요한 일은 없다고 본다. 관리자가 돼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프로양돈인이라면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자생력이 없고 면역력이 낮은 어린 자돈에게 하루 먹을 양을 한 번에 주는 행위, 마시고서 배탈 안 나면 비정상적인 물을 마시라고 권하는 행위, 셋바람 심하고 차거운 방바닥에서 먹고 잠자라고 방치하는 행위, 똥냄새 가득하고 먼지 뿌연 공기를 마시게 하는 행위, 지저분하고 거친 주사바늘로 찌르는 행위, 반갑다고 바짓가랑이 물어봤는데 발로 차는 행위, 꼬리 물고 옆구리 파는 동료 돼지를 방치하는 행위, 병든 선배돼지 옆에다 방

을 마련해 주는 행위, 한 돈방에 낫선 돼지 수십 마리와 강제로 동거시키는 행위, 아프고 열나는데 얼른 찾아내어 치료해주지 않는 행위 등등은 관리자의 애정결핍 증세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돼지들이 관리자의 눈치를 실실 살피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농장주라면 향후 양돈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전 세계 양돈장을 괴롭히는 PRRS, 썬코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PED 바이러스나 대장균, 살모넬라균 같은 병원성 세균과 다른 병원체들도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보지 않는 그 시간에도 계속 변화를 시도 한다는 사실이다.

돼지가 살고 있는 환경요인이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라 돼지의 면역능력도 변화하고, 병원체도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의 주체인 사람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못한다면 돼지는 죽게 되는 것이 이치이다. 내 농장의 돼지가 많이 죽어나간다면 농장 내 여러 가지 요인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치한 결과라는 것이다.

PRRS 바이러스, 썬코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증식하여 농장내 모든 돼지를 전염시키고 공격하는 과정 과정이 변화인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감염돈을 조속히 격리시키지도 않고 소독도 게을리 하고, 치료도 하지않는다면 병원체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만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절기는 환경요인의 변화가 극심한 계절을 말한다.

환경요인의 변화는 돼지의 면역체계를 흔들어서 놓아 항병력을 저하시켜 놓는다. 여기에 고온다습한 시기에 창궐했던 병원체들도 환경의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공기 중의 먼지를 타고, 물과 사료에 몸을 숨긴 채, 벌써 아픈 돼지의 콧물이나 분뇨에 접촉할 때, 돼지 몸속으로 침입해 적절한 장기에 진영을 세우고 수를 늘려나가는 작전을 쓰는 것이다.

이 때 그들 병원체들과의 싸움에서 지면 다양한 형태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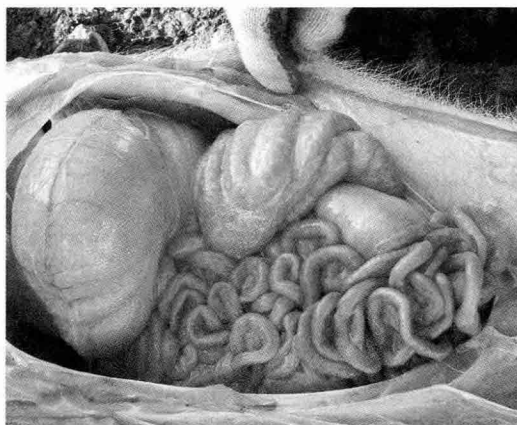
환절기의 자돈사는 모체이행항체도 사라진 상태이고, 능동면역 기능도 준비가 안된 상태여서 특히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 발병과 질병확산의 근원지가 되기 쉬운 곳이다.

그러므로 자돈사의 사양관리 포인트를 애정을 갖고 실천하는 것은 질병에 지지 않고 성공하는 양돈을 위한 교두보가 됨을 인식하자.

• 자돈사 사양관리 포인트 •

첫째, 핏기가 없고 활력이 떨어지는 자돈들을 따로 격리하여 특별식과 좋은 잠자리를 제공한다. 이런 돼지를 방치하면 병원체의 우선 공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항생제와 영양제를 주사하여 활력을 찾아주자.

둘째, 아플 것 같은 돼지를 색출해내어 조기에 격리시키자.



<사진 3> 살모넬라감염증에 의한 설사를 보이는 자돈의 위장관, 조기격리 치료가 필수

PRRS나 썬코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돼지의 증상을 찾아내는 방법을 전문수의사로부터 배우고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피모가 거칠고, 이상 호흡을 보이거나, 눈이 붓고 눈곱이 끼는 증상, 기운 없이 조는 듯 한 증상, 배를 깔고 누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자돈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가가 관건이다. 본격적인 증상을 보인 후 찾아낸다면 벌써 많이 늦었다는 것이다.

병원체를 배설하여 전파를 시키고 있는 중인 것이다.

셋째, 설사 증상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에 대한 발견과 처치가 늦으면 질병경과는 걸잡을 수없이 악화된다. 면역억제성 병원체에 감염된 돼지에서의 복통과 설사는 영양실조, 면역력 저하를 가중시키고 기회주의적 병원균의 증식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넷째, 밀사는 돼지를 미워하고 있다는 제일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이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밥 먹기도 어렵고, 공기품질도 불량하다. 자기를 괴롭히는 동료가 많아 받는 사회적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다. 질병전파

속도는 말할 필요도 없다. 코와 입을 맞대고 자고 얼굴에 똥오줌 싸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니 말해 무엇 할 것인가.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는 것에 관용을 베풀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이다.



<사진 4> 한 지붕아래 돈군 크기 최소화는 전염병 차단
의 핵심요인

다섯째, 한 지붕 아래 두수를 가능한 줄이고, 일령차이를 2주 이내로 하자.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돼지를 한 지붕아래 두면 질병감수성이 높은 돼지와 병원체를 배설하는 돼지가 같이 사는 꼴이니 수평감염 기회가 많아진다. 전염병이 상재하는 농장은 돈방 칸막이를 완전밀폐 시킬 것을 권장한다.

여섯째, 자돈은 속옷만 입은 상태이므로 적절한 온도관리가 중요하다.

분만사에서 전입되기 두 세 시간 전부터 자돈사를 예열시키고 이유체중에 따라 초기온도를 세팅한다. 이유체중이 약7kg인 경우 29도, 6kg인 경우 정도라면 30도에서 시작하고 3~4일에 1도씩 온도를 낮추어가는 방법은 효과적이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유속을 초당 20cm 이상으로 높게 하면 설사와 호흡기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유

의해야 한다.

습도가 60~70% 정도가 되도록 관리하자. 동절기에 접어들어 건조한 돈사는 소독수를 살포하여 습도관리를 하면 도움이 된다.

일곱째, 면역공백기인 자돈구간에서 돈사내 소독은 필수적이다.

돈사가 비었을 때 완벽한 수세 → 소독 → 건조 → 비우기 과정도 중요하지만, 돼지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소독을 게을리 하면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병원체가 쉽게 전파할 수 있는 곳이 자돈사이다. 가슴을 겸한 소독관리를 강화하자.

여덟째, 찬 공기가 자돈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자.

셋바람, 피트나 스크레파 밑에서 쳐 올라오는 바람, 빠른 유속에 의해 생기는 바람은 높은 온도 일교차와 더불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고무판을 깔아주고 필요하면 국소보온을 해주자.

아홉째, 급이기와 급수기 관리는 자돈사 관리의 핵심요소이다.

반들거리는 급이기에 1~2호 사료는 하루에 5회, 3호 사료는 3회 이상의 급여횟수가 절대적이다. 고급사료는 병원체의 배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급수기의 편만한 부착위치, 적절한 유속, 청결도 유지 관리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마태의 20가지 원칙에서 강조했듯 언제라도 물과 사료에 편히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면역력을 증강하는 기초관리인 것이다.

돼지를 사랑하면 돼지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니 사람과 돼지의 상호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 돼지를 사랑하자. 저돈가 시대엔 더욱더 사랑해주자. 언제인지 모르게 부자가 되도록 해줄 것이니. **양돈**